

남녀공통필수 과목으로의 전환에 따른 중학교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지원교사에 의한 「가정」 교과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A 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by home economics majored and other subject majored Teachers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 호 순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유 태 명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Hyo Soon, Kim

Department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ae Myung, Yo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level in teaching home economics between home economics majored teachers(HET) and other subject majored teachers(OS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2 home economics teachers randomly selected from 96 middle schools all over the countr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6, september to 12, October, 1996, and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les, and t-test using SAS program.

The major finding were as follows:

1) In general, home economics is taught mostly by OST in boy' middle school. 92% of OST is employed in boy' middle school and 89.13% of them is employed

in private boy' middle school.

2) OST had less in-service experiences than HET on sixth revised curriculum, and had lower recognition than HET on the goal, content, teaching method, evaluation of home economics.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level of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teaching home economics between HET and OS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제 7차 교육과정(안)에서의 실과군(가정·기술)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정교과가 남녀공통 필수 이수 교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현행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가정교과만이 남녀공통 필수 이수 교과목이다. 제 5차 교육과정까지는 남학생이 실질적으로 가정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 중학교에는 가정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없었던 게 관례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과 교사의 수급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남자 중학교를 중심으로 비전공 교사가 가정교과를 담당지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정교과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이 제 7차 교육과정까지 확대될 경우 남자 고등학교에서도 교사 수급문제가 예견된다.

교육이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써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또 반대로 사회 현상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한사회의 발전과 교육과는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으며, 교육의 안정과 발전은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보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 교육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 31조 4항에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교직의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비전공 교사의 가정과목 담당지도는 교직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것이며, 또한 교육법상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에 근거한 자격증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라 해석된다.

교직의 전문성과 가정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가정과 과목은 가정교육 전공자가 가르쳐야 함이 바람직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제 6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는 남녀중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사수급 실태와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지원교사간의 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인식, 가정교과 지도실태, 가정교과 지도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만족감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1. 교사 양성 체제·교사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지원 교사가 교직의 전문성을 위배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담당 교사의 집단간 교과운영에 관한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 가정담당 교사의 집단간 교과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4. 가정담당 교사의 집단간 교과지도에 대한 만족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 ① 가정담당 교사 : 교원자격증 과목과 관계없이 현재 가정교과를 지도하는 교사.
- ② 가정전공 교사 : 사범대학에서 가정교육을 전공했거나 비사범 가정계열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 ③ 지원교사 : 교원자격증 과목이외의 타교과를 지

원하여 지도하는 교사.

- a. 비전공 지원교사 : 타교과를 전공한 자로서 가정교과를 지원하는 교사.
- b. 가정전공 지원교사 : 가정을 전공한 자로서 타교과를 지원하는 교사.

II. 관련연구 고찰

1. 교직의 전문성

교육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지방교육자치제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내용과 교육활동, 교육방법을 교육담당자인 교원에게 책임 지움으로써 교육이 한 사회의 특정 이익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전문성으로 규정하였을 때 전문성이란 전문가가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발휘해야 할 직업인으로서의 특성을 말한다. 다음의 교원 전공과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교직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의 수업을 하라고 교장이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직무 명령이며 교육법 제79조의 위반이므로 이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강사를 채용한다든가하여 부족한 교사를 메꾸는 것이 교육 행정 측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 부담을 교사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결원교과가 발생할 경우 교직의 전문성에 근거한 자격증주의는 결원교과가 생기는 경우 해당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지도를 해야하며, 교사가 결원교과에 대한 복수 전공자 또는 부전공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과목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지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교사 양성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사는 목적형의 사범대학과 개방형의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절충형 체제를 갖고 있다. 현재 지속성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곳은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일반대학 교육과, 교육대학원 등이 있다. 사범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국립 12개교, 사립 27

〈교직 전문성에 관한 문의〉

질문

저는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저에게 미술시간의 일부를 맡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그렇게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미술은 하나의 예술로서 철학과 사상이 반영되는 것인데 그 분야에 문외한인 제가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개인적 부담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아이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제도의 법률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신임섭, 1988.

위 질문에 대해 〈교사와 교육법〉에서 신임섭은 (1988)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79조에서는 “① 교사는 ...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분명히 교직의 전문성에 근거한 자격증주의를 명시한 것이고, 교사의 교육권도 자격증에 의해 뒷받침된 전문성에 입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전공 이

개교로서 총 39개교이며, 일반대학에 ○○교육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국립 5개교, 사립 19개교로서 총 24개교, 그리고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국·공립 21개교, 사립 80개교로서 총 101개교이다(교육부 교직국, 1993: 한국교육개발원, 1994 재인용).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은 21개 국·공립 대학에서 493개 학과에 개설되어 있으며, 80개 사

립대학에서 1,377개 학과에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총 101개 대학에 1,870개 학과에 개설되어 있다. 실제 1993년 교원자격증 발급현황을 보면, 총 28,274명 가운데 사범대학이 10,227명(36.17%), 교직과정 이수자가 13,439명(47.53%), 각과의 교육과가 2,621명(9.97%), 교육대학원이 1,984명(6.3%), 준교사 3명(0.01%)이다(강인수, 1996). 이는 매년 평균 10만명 정도의 교직과정 이수자 중 실제로 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13,000명 정도인 것으로 보아서 교직 이수과정은 자격증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막대한 대학교육의 손실을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교사 양성기관이 대체로 어느 정도 충실하게 교사 양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비교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4)는 사범대학이 일반대 교직과정에 비하여 긍정적인 높은 평가를 받은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교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측면을 조사한 연구에서도(장은정, 1991) 사범대 출신 교사들이 일반대 교직과정 출신 교사들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사범대 출신의 교사들이 교직에 종사하려는 의도적인 동기유발을 가지고 대학과정에서부터 교사로서의 자질 연마에 힘쓴 반면,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출신교사들은 대부분이 중간에서 진로를 바꾸어 교사의 길로 들어섰기에 교직 전문성 전반에 관한 인식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2. 가정과 교사 수급문제

교육부에서 중학교 교사의 인원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책정 자료를 받아 기존의 정원 확보율을 고려하여 교사수를 책정하고, 시·도별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배정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요구한 교사수를 100% 배정할 수 없어서 정원확보율이 가장 낮은 학교순으로 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설학교나 특수한 경우 외에는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교사배정은 공립중등학교의 배정 기준에 준하여 법인에서 필요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재정적인 여건과 형편을 고려하여 최소인원을 확보하여 활용하려는 법인측의 배려 때문에 결원이 발생한 전공과목의 교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워 과원교사가 불가피하게 전공이 아닌 과목도 지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사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제 6차 교육과정에서 남녀공통 필수 이수 교과가 된 가정과목의 교사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학교와 남녀공학에서는 이미 가정과목을 가정전공 교사가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 수급문제가 크게 논의되지는 않으나 남학교에서는 가정전공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교사 수급문제가 예견된다.

우리나라의 가정교사는 주로 사범계인 가정교육과, 비사범계인 가정학계열 학과에서의 교직과정에서 양성된다.

우리나라의 전국 대학교에 있는 가정교육과는 총 21개 대학으로써, 1996학년도 졸업자는 599명이고, 그중 취업자는 258명이다(교육통계연보, 1996). 취업자 중에서 중학교의 가정과 교사로의 취업 현황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또한 전국 대학교의 가정학계열 학과수는 171개이며, 1996학년도 졸업자는 5,861명이다(교육통계연보, 1996). 교직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에서 정원의 30%이내 범위의 인원만 교직과정의 수강이 가능하며, 졸업시 전공 성적과 교직과목 성적이 모두 B학점 이상인 졸업자에게만 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 가정과목 자격증 소지자는 각자 경쟁을 통하여 중등학교에 임용된다. 1996년 현재 전국의 중학교 수는 2,705개교로, 남학교가 605개교, 여학교가 549개교, 남녀공학이 1,551개교이다. 이 중에서 특히, 남자 사립중학교인 238개교에서 가정과 교사수급문제가 예상된다.

1996년 현재 국·공립 중학교에 재직중인 가정과 교사중에서 가정교과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총 5,236명이고, 이중에서 가정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4,146명이며, 가정교과와 타교과를 같이 담당하는 교원은 878명이고, 가정교과가 아닌 타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53명이다. 1995년 교육통계연보에서는 가정교과와 타교과를 같이 담당하는 교원이 556명이었고, 가정교과가 아닌 타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27

명이었는데 비하여 타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제 6차 교육과정부터 가정교과가 남녀공통 필수 이수 교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 중학교에서는 비전공 교사가 가정교과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1996년 교육통계연보에서는 이에 대한 통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중학교에서 가정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통계연보(1996)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중학교에서 가정과목 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총 5,236명이고, 또한 전국의 중학교 수는 총 2,705(44)개교이다. 이들 전국 중학교 중에서 무선 표집방식으로 하여 총 190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학교의 가정 담당 교사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절차

표집된 190개 중학교에서 가정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우편회수법을 이용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6년 9월 16일부터 10월 12일 까지 조사하였고, 9월 25일에 후속으로 우편엽서를 보냈다. 총 450매의 질문지를 발송하여 195매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미흡한 3매를 제외한 192매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지역별 발송 및 수집 상황은 <표 1>과 같다.

3. 조사도구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가정교과 운영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가정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하여 질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가.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관한 문항

개인의 배경자료,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 제 6차 교육과정, 가정과 목표, 가정과 지도 실태에 대하여 묻는 40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나. 교과지도에 있어서 자신감과 만족감

교과지도에 있어서 자신감 변인은 김광명, 신순임, 강태완, 이대형, 장병기(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를 보충하여 사용하였다. 자신감을 이들 문항의 각 물음에 대하여 5개의 범주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교과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범주 - 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② 자신은 있지만 동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자신은 있는 편이지만, 관련된 교과 연수나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④ 실질적인 교과연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지원교과목이라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 가정교과의 일반적인 인식

채정현(1995)의 연구,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해설(1994), 이종이(1995)의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인(1995)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15개 문항에 대하여

<표 1> 자료 수집 상황

구 분	특·광역시		시지역		군이하		계	
	학교수	질문지수	학교수	질문지수	학교수	질문지수	학교수	질문지수
발 송	47	169	69	172	74	109	190	450
회 수	28	65	41	88	27	42	96	195
(율·%)	(59.6)	(38.5)	(59.4)	(51.2)	(36.5)	(38.5)	(50.5)	(42.2)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정교과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시 새로운 인식에 대한 신뢰도는 0.84이고, 전통적인 인식에 대한 신뢰도는 0.66이다.

가~다에 걸쳐 총 10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가정담당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가정교과 담당교사가 지도하는 과목은 <표 3>과

<표 2> 가정교과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FACTOR1	FACTOR2
	새로운 인식	전통적 인식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0.82	
가정생활에서 자주적이고 협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0.80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0.75	
학생들이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돕는다.	0.73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0.70	
학생들이 가족과 사회의 상태를 평가하여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0.68	
주부 중심의 가사 운영 및 관리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0.74
현모양처 양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0.71
학생들이 가정일을 능숙하게 하도록 돕는다.		0.70
가사실무에 관한 기능습득을 위주로 해야한다.		0.67
각 요인별 설명되는 변량	3.51	2.00
전체로 설명되는 변량	5.51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조사자료는 먼저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와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계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방법은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5점척도의 평균으로 하였으며,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과 운영에 관한 실태와 일반적인 인식 등의 각 문항에 관한 것은 빈도수에 따른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지원교사간의 비교에 관한 문항은 교차분석과 t-검증으로 처리하였다.

같다.

가정계열 전공자로서 가정교과만 지도하는 교사는 51.04%(98명)이고, 가정계열 전공자로서 가정과목을 가르치고 타교과를 지원하는 교사는 22.92%(44명)로 그 중에서 58.09%(26명)가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중학교에서 가정전공 지원 교사중에서 45.45%(20명)가 기술을 지원하고 있었다. 즉 비전공 지원교사(50명)의 56%(28명)가 기술전공 교사인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정전공 지원교사(44명)의 56.82%(25명)가 기술을 지원하고 있었고, 비전공 지원교사(50명)의 56%(28명)가 가정을 지원하고 있어 두 과목이 상호지원을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학교 유형, 설립 유형별 실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가정담당 교사의 지도 과목

담당 과 목	교 과		빈 도(%)
	전 공 교 과	지 원 교 과	
가정계열 전공자로서 가정과목만 가르친다.	가 정		98 (51.04)
	소 계		98 (51.04)
가정계열 전공자로서 가정과목을 가르치고 타교과를 지원하여 지도한다.	가 정	도 덕	2 (1.04)
		국 어	1 (0.52)
		사 회	1 (0.52)
		수 학	1 (0.52)
		과 학	1 (0.52)
		미 술	1 (0.52)
		한 문	3 (1.56)
		영 어	2 (1.04)
		기 술	26 (13.54)
		컴 퓨 터	6 (3.13)
	소 계		44 (22.92)
타교과 전공자로서 자신의 전공과목과 가정교과를 지원하여 지도한다.		가 정	2 (1.04)
	도 덕		1 (0.52)
	국 어		1 (0.52)
	사 회		2 (1.04)
	수 학		4 (2.08)
	과 학		1 (0.52)
	음 악		2 (1.04)
	미 술		1 (0.52)
	한 문		1 (0.52)
	영 어		1 (0.52)
	기 술		26 (13.54)
	전자공학		2 (1.04)
상 업		1 (0.52)	
미 표 기		1 (0.52)	
	소 계		45 (23.44)
타교과 전공자로서 가정교과만을 지원하여 지도한다.	기 술	가 정	2 (1.04)
	컴 퓨 터		1 (0.52)
	전자공학		1 (0.52)
	간 호		1 (0.52)
	소 계		5 (2.60)
계	192 (100)		

가정전공 교사와 가정전공 지원교사는 여자 중학교와 국·공립 중학교에 치중되어 있으며, 비전공 지원교사는 남자 중학교와 사립 중학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정전공 지원교사는 국·공

립 여자 중학교에 29.55%(13명), 사립 여자 중학교에 29.55%(13명)가 치중되어 있어 설립유형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비전공 지원교사는 사립 남자 중학교에 82%(41명)가 근무하고 있었다. 비전공

〈표 4〉 가정담당 교사의 근무학교 유형별 실태

	여자 중학교		남자 중학교		남녀 공학		계	
	n	%	n	%	n	%	n	%
가정전공 교사	40	58.82	28	32.94	30	76.92	98	51.04
전공 지원교사	26	38.24	11	12.94	7	17.95	44	22.92
비전공 지원교사	2	2.94	46	54.12	2	5.13	50	26.04
계	68	35.42	85	44.27	39	20.31	192	100.00

〈표 5〉 가정담당 교사의 학교 설립 유형별 실태

	국·공립 중학교		사립 중학교		계	
	n	%	n	%	n	%
가정전공 교사	68	68.00	30	32.61	98	51.04
전공 지원교사	25	25.00	19	20.65	44	22.92
비전공 지원교사	7	7.00	43	46.74	50	26.04
계	100	52.08	92	47.92	192	100.00

지원교사(50명)의 92%(46명)가 남자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남자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전공 지원교사(46명)의 89.13%(41명)가 사립학교임이 보고 되었는데 이는 가정과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이는 여자 중학교에서는 가정전공 교사가 과외교사임을 그리고, 사립 남자 중학교에서는 가정교과를 전공하는 교사에 결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가정담당 교사의 집단간 교과운영에 대한 인식 비교 분석

1) 가정과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인식 비교

가정담당 교사의 대부분은 가정과의 목표와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77.08%), 목표와 내용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22.9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인식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01$)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표 6〉 가정과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인식

	가정전공 교사		비전공 지원교사		계	
	n	%	n	%	n	%
잘 알고 있다	25	17.61	2	4.00	27	14.06
알고 있다	102	71.83	19	38.00	121	63.02
잘 모른다	14	9.86	28	56.00	42	21.87
전혀 모른다	1	0.70	1	2.00	2	1.04
계	142	73.96	50	26.04	192	100.00

$$\chi^2 = 48.170, df = 3, p = .000***$$

타났다.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지원교사간의 가정과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가정전공 교사는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가정과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비전공 지원교사보다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전공 교사들은 모른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10.56%인데 비하여 비전공 지원교사는 58%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가정교과에 대한 연수 경험

대부분은 연수경험이 있었으나(70.42%), 비전공 지원교사의 87.76%가 연수경험이 없었고, 경험이 있는 경우도 가정전공 교사는 2회 이상이 23.24%인데 비하여 0%로 1회에 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3) 가정교과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새로운 인식과 전통적 인식간의 요인분석을 t-test 한 결과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지원교사간에 새로운 인식에는 차이를 보였고, 전통적 인식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전공 교사가 비전공 지원교

〈표 7〉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가정교과에 대한 연수 경험

	가정전공교사		비전공지원교사		계	
	n	%	n	%	n	%
없 다	42	29.58	43	87.76	85	44.50
1 회	67	47.18	6	12.24	73	38.22
2 회	25	17.61	0	0.00	25	13.09
3회 이상	8	5.63	0	0.00	8	4.19
계	142	74.35	49	25.65	191	100.00

$\chi^2 = 50.728, df = 3, p = .000***$

장현숙·조필교(1996)의 연구에서는 6차 교육과정 에 따른 가정교과에 대한 교사 연수의 필요도에 대하여 대다수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가정교과에 대한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가정교과에 대한 연수 경험에 대한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01$)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전공 교사

사보다 더 가정과 교육이 단순한 가사일이나 지식 습득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는 태도와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지도 실태에 대한 비교

가정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지도 실태에 대한 표는 〈표 9〉와 같다.

이 결과는 가정교과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천학

〈표 8〉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빈 도 수	평균±표준편차	t
새로운인식 (FACTOR1)	가정전공 교사	142	3.95 ± 0.68	2.67**
	비전공지원교사	50	3.64 ± 0.71	
전통적인인식 (FACTOR1)	가정전공 교사	142	2.71 ± 0.72	-1.14
	비전공지원교사	50	2.85 ± 0.79	

* $p < .05, ** p < .01, p < .001$

〈표 9〉 지도 실태에 대한 비교

		빈도수	평균 ± 표준편차	t	
수업 형태	강의 중심의 수업을 주로 함	가정전공	136	3.71 ± 0.79	-0.76
		비전공지원	48	3.81 ± 0.73	
	시청각자료·학습자료를 많이 이용	가정전공	137	2.80 ± 0.93	1.77
		비전공지원	46	2.52 ± 0.94	
	활동중심·사례중심수업을 주로함	가정전공	135	2.75 ± 0.80	1.80
		비전공지원	47	2.49 ± 0.98	
토의학습 및 문제해결학습을 주로함	가정전공	135	2.44 ± 0.82	-0.08	
	비전공지원	46	2.46 ± 0.91		
협동학습을 주로 함	가정전공	136	2.45 ± 0.83	0.40	
	비전공지원	46	2.39 ± 0.83		
평 가	지필평가를 주로 실시	가정전공	137	3.66 ± 0.84	-0.66
		비전공지원	48	3.75 ± 0.84	
	목표 및 내용과 일관된 평가를 실시	가정전공	134	3.56 ± 0.70	1.21
		비전공지원	46	3.41 ± 0.75	
	실기평가는 먼저 기준을 설정하여 알림	가정전공	138	4.12 ± 0.73	3.74***
		비전공지원	47	3.49 ± 1.08	
	실기평가는 지도시간 단위별로 실시	가정전공	136	3.28 ± 1.14	1.91
비전공지원		46	2.91 ± 1.07		
문제해결 능력, 응용력, 실천적 태도에 중점	가정전공	136	3.20 ± 0.80	1.28	
	비전공지원	46	3.02 ± 0.86		
정의적영역의 문항은 서술문항을 이용 하여 평가	가정전공	135	3.16 ± 0.90	2.15*	
	비전공지원	47	2.83 ± 0.89		
지 도 방 법	먼저 수업 지도 계획을 세우고 학습자 료 준비	가정전공	138	3.83 ± 0.60	3.89*
		비전공지원	47	3.32 ± 0.84	
	교과의 내용을 현장실정에 맞게 재구성	가정전공	138	3.27 ± 0.82	1.92*
		비전공지원	47	2.96 ± 1.00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지도	가정전공	138	3.85 ± 0.64	4.59*
		비전공지원	47	3.34 ± 0.70	
	먼저 학생들의 생각이나 이해도 조사	가정전공	138	3.15 ± 0.91	2.51*
		비전공지원	46	2.76 ± 0.92	
수업에서 열린질문을 많이 이용	가정전공	137	3.26 ± 0.81	2.89*	
	비전공지원	46	2.87 ± 0.78		
수업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 - 동료교사 와 의논	가정전공	138	3.37 ± 0.79	2.05*	
	비전공지원	47	3.09 ± 0.90		
내용과 관련된 실례와 예들을 제시	가정전공	138	3.97 ± 0.62	3.56***	
	비전공지원	48	3.52 ± 0.80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활동영역에 대한 자신감 비교

		사전수업계획		수업자료준비		학습지도방안		학습평가영역	
		n	%	n	%	n	%	n	%
가정전공교사	범주①	67	47.52	38	26.95	46	32.62	52	37.41
	범주②	41	29.08	52	36.88	48	34.04	46	33.09
	범주③	31	21.99	38	26.95	33	23.40	33	23.74
	범주④	2	1.42	13	9.22	14	9.93	8	5.76
	범주⑤	0	0.00	0	0.00	0	0.00	0	0.00
	소 계	141	74.21	141	74.60	141	74.21	139	74.33
비전공지원교사	범주①	9	18.37	5	10.42	8	16.33	4	8.51
	범주②	10	20.41	7	14.58	5	10.20	8	17.02
	범주③	8	16.33	12	25.00	8	16.33	9	19.15
	범주④	11	22.45	13	27.08	19	38.78	16	34.04
	범주⑤	11	22.45	11	22.92	9	18.37	10	21.28
	소 계	49	25.79	48	25.40	49	25.79	47	25.27
x ²		x ² = 64.469*** df = 4		x ² = 50.676*** df = 4		x ² = 54.970*** df = 4		x ² = 64.552*** df = 4	

* p < .05, ** p < .01, p < .001

〈표 11〉 내용지도에 대한 자신감 비교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관리와 소비생활		식 생활		의 생활		주 생활	
		n	%	n	%	n	%	n	%	n	%
가정전공교사	범주①	63	44.68	37	26.24	76	53.52	51	35.92	47	33.57
	범주②	48	34.04	52	36.88	33	23.24	47	33.10	40	28.57
	범주③	27	19.15	34	24.11	28	19.72	30	21.13	37	26.43
	범주④	3	2.13	18	12.77	5	3.52	14	9.86	16	11.43
	범주⑤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소 계	141	75.00	141	75.00	142	74.35	142	74.35	140	74.07
비전공지원교사	범주①	18	38.30	12	25.33	8	16.23	6	12.24	6	12.24
	범주②	9	19.15	7	14.89	6	12.24	3	6.12	8	16.33
	범주③	13	27.66	18	38.30	9	18.37	9	18.37	7	14.29
	범주④	4	8.51	5	10.64	15	30.61	12	24.49	13	26.53
	범주⑤	3	6.58	5	10.64	11	22.45	19	38.78	15	30.61
	소 계	47	25.00	47	25.00	49	25.65	49	25.65	49	25.93
x ²		x ² = 16.969*** df = 4		x ² = 23.131*** df = 4		x ² = 71.061*** df = 4		x ² = 77.892*** df = 4		x ² = 58.581*** df = 4	

* p < .05, ** p < .01, p < .001

문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수업시수가 축소되어 활동중심·토의중심·협동학습 위주의 수업보다는 이론중심·강의중심의 수업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수업형태에서는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지원교사간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평가영역과 지도방법영역의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남은 가정전공 교사들이 비전공 지

원 교사들보다 더 가정과에 적합한 방향으로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정담당 교사의 집단간 교과지도에 대한 자신감 비교 분석

- 1) 학습활동 영역에 대한 자신감
- 가정과와 관련된 학습활동 영역에 있어서의 자신

〈표 12〉 가정과 목표의 성취도에 대한 자신감 비교

		가정전공 교사		비전공 지원교사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게 한다.	범주①	72	51.43	19	40.43
	범주②	40	28.57	11	23.40
	범주③	24	17.14	6	12.77
	범주④	4	2.86	5	10.64
	범주⑤	0	0.00	6	12.77
	소 계	140	74.87	47	25.13
$\chi^2 = 23.939, df = 4, p = .000^{***}$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며,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하게 한다.	범주①	64	46.38	13	27.66
	범주②	45	32.61	8	17.02
	범주③	25	18.12	9	19.15
	범주④	4	2.90	8	17.02
	범주⑤	0	1.00	9	19.15
	소 계	138	74.59	47	25.14
$\chi^2 = 43.151, df = 4, p = .000^{***}$					
가정생활에 자주적이고 협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범주①	52	37.41	14	29.79
	범주②	54	38.85	9	19.15
	범주③	27	19.42	11	23.40
	범주④	6	4.32	8	17.02
	범주⑤	0	0.00	5	10.64
	소 계	139	74.73	47	25.27
$\chi^2 = 27.191, df = 4, p = .000^{***}$					
가정생활에 대한 체험적인 학습을 통하여, 자신과 가정생활의 관계를 이해하고,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범주①	48	34.04	6	12.77
	범주②	50	35.56	14	29.79
	범주③	35	24.82	5	10.64
	범주④	7	4.96	10	21.28
	범주⑤	1	0.71	12	25.53
	소 계	141	75.00	47	25.00
$\chi^2 = 51.005, df = 4, p = .000^{***}$					

* $p < .05$, ** $p < .01$, $p < .001$

감을 비교해 보면 <표 10>과 같다.

가정과와 관련된 활동영역에 있어서의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01$)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전공 교사들이 비전공 지원교사보다 사전 수업 계획, 수업 자료 준비, 학습 지도 방안, 학습 평가 영역의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전공 지원교사들은 가정과와 관련된 학습활동 영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과연수가 절실히 필요하고, 지원교과목이라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많았다.

2) 내용지도에 대한 자신감

내용지도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내용지도에 있어서의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간발달과 가족관계: $p < 0.01$ *, 가정자원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p < 0.001$ ***)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전공 교사들은 비전공 지원교사보다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영역의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가정과 목표의 성취도에 대한 자신감

가정과 목표의 성취도에 대한 자신감 비교는 <표 12>와 같다.

가정과 목표의 성취도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001$ ***)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과 목표의 성취도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가정전공 교사가 비전공 지원교사보다 자신감이 더 높았다.

4. 가정담당 교사의 집단간 교과지도에 대한 만족감 비교 분석

가정전공 교사와 가정전공 지원교사, 그리고 비전공 지원교사간의 가정교과 지도에 대한 만족감을 비교하면 <표 13>과 같다.

가정교과 지도에 대한 만족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01$)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전공 교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전공 지원교사, 비전공 지원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정전공 지원교사는 전공과목인 가정과목 외의 타교과를 지원하므로 전문영역이 아닌 타교과 수업연구로 인해 가정과 수업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

<표 13> 가정교과 지도에 대한 만족감 비교

	가정전공교사		전공지원교사		비전공지원교사		계	
	n	%	n	%	n	%	n	%
만족한다	53	55.21	10	23.26	3	6.00	66	34.92
그저그렇다	26	27.08	8	18.60	8	16.00	42	22.22
만족하지 못한다	9	9.38	3	6.98	6	12.00	18	9.52
기회가 주어지면 타교과로 바꾸고 싶다.	8	8.33	4	9.30	0	0.00	12	6.35
가정교과에 주력하고싶다	0	0.00	18	41.86	0	0.00	18	9.52
전공교과에 주력하고싶다	0	0.00	0	0.00	33	66.00	33	17.46
계	96	50.79	43	22.75	50	26.46	189	100.00

$\chi^2 = 184.945, df = 10, p = .000*** (p < .05, ** p < .01, p < .001)$

므로 만족도가 가정전공 교사보다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비전공 지원교사 역시 가정교과는 전공교과가 아니므로 전공교과에 주력하고 싶다는 응답이 66%나 나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타교과를 지원하는 교사들의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개정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가정교과 담당교사의 가정과 운영에 대한 인식과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지원교사가 가정교과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자신감과 만족감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집대상은 전국의 국·공·사립 중학교 96개교에서 가정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192명이였다. 질문지의 여러 변인 중에서 학교 유형, 학교 설립 유형, 현재 담당교과, 대학에서의 가정학 전공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대학에서의 가정학 전공여부에 따라 가정전공 교사와 타전공 지원교사를 구분하고 이들의 인식, 자신감과 만족감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중요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6년 현재 전국의 중학교 수는 2,705개교(44)이고, 이 중 남자 중학교는 605개교이다. 가정교과는 제 6차 교육과정부터 남녀공통 필수 이수 교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 중학교에서는 가정교과를 전공한 교사가 없는 상황이었다. 367개교의 국·공립 남자 중학교에서는 5차에 비해 시수가 줄어든 가정교과의 여자 중학교 과원교사를 교사 전보 제도에 의하여 충원할 수 있으나, 238개교의 사립 남자 중학교에서는 가정전공 교사를 새로 채용해야 하나,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전공 교사가 가정교과를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가정전공 교사는 국·공립 여자 중학교에 치중되어 있고, 가정전공 지원교사는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여자 중학교에 치중되어 있었고, 가정전공

지원교사(42명)의 59.52%(25명)가 기술과목을 지원하고 있었다. 비전공 지원교사(50명)는 사립 남자 중학교에 82%(41명)가 치중되어 있었다. 특히, 비전공 지원교사(50명)의 56%(28명)가 기술전공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직의 전문성에 근거한 자격증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가정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가정교과를 지도하고 있는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지원교사 간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을 때 비전공 지원교사들은 가정과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자신이 지도하는 교과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지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전공 지원교사들이 전공 아닌 교과를 지도할 때 교육의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제 6차 교육과정이 실시 되기 전에 충분한 교과연수가 이루어진 후에 교과를 지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정전공 교사들보다 비전공 지원교사들이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가정교과에 대한 연수 경험이 적었다. 이렇게 비전공 지원교사들이 가정교과에 대한 실질적인 연수 없이 가정교과를 지도하므로 교과지도에 있어 가정과와 관련된 학습 활동 영역, 내용 지도 영역, 가정과 목표의 성취도에 대한 모든 면에서 가정전공 교사들보다 자신감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를 지도하므로 만족감도 낮았다. 이는 가정전공 교사가 타과목을 지원하여 지도하는 경우에도 나타났다. 교사가 전문영역이 아닌 타교과에 대한 수업 연구로 인해 전공교과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교육의 성과가 교사가 교직에 만족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육에 헌신할 때 기대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전공 교사가 전공 아닌 타교과를 지도하는 것은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며, 교직의 전문성에 근거한 자격증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중학교에서는 가정전공 지원교사가 기술을 지원하고, 남자 중학교에서는 기술전공 교사가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여자 중학교와 남자 중학교간에 교사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근본적으로 교사 수급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며, 현재의 여건에서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전공 지원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연수기회와 장학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제 7차 교육과정(안)에서의 실과군(가정, 기술)은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정교과가 남녀공통 필수 교과로 바뀔 것을 의미한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과의 교사 수급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현상이 제 7차 교육과정까지 확대될 경우 남자 고등학교에서의 교사 수급문제가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위와 같은 교사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사 수급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며, 교사들의 희망에 따라 단기 교원 양성코스를 개설하여 가정교과를 대상으로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방법과 사립 중등학교에서는 인접학교간에 순회지도교사 제도와 초빙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상호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교사양성 체제 기관에서는 주전공외의 부전공 또는 복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외에도 많은 해결방안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다각도로 심층연구 해야겠다.

【참 고 문 헌】

- 1) 강인수(1996),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개발원.
- 2) 교육대사전 편찬위원회(1972), 「활용교육대사전」, 서울: 신진출판사.
- 3) 교육법전 편찬회(1995), 「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 4) 교육부(1994),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5) 교육부(1992),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6) 교육부 국립 평가원(1994, 1995, 1996), 「교육통계연보」, 서울.
- 7) 김광명, 신순임, 강태완, 이대형, 장병기(1995), “자연 교과 지도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인식”, 과학교육연구 제18집 pp. 25~28.
- 8) 김전원(1993),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수급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대한교육연합회 교육행정분과 연구 보고서.
- 9) 대한교육연합회(1969), 「교원유인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 10) 대한교육연합회(1974), 「교원 제자리 찾기」.
- 11) 대한교육연합회(1982), 「교원의 근무 부담에 관한 분석적 연구」.
- 12) 리크르트(1995), 「전국대학연감」, 서울.
- 13) 백명희(1977), “한국 교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93),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배영사.
- 15) 송두현(1983), “교권관련 사건의 법원 판례에 관한 교원의 의견 분석”, 대한교육연합회 교직 생활분과 연구 보고서.
- 16) 신임섭(1988), 「교사와 교육법」, 서울: 교육문고.
- 17) 유현숙(1993), “교원 연수 제도의 개선 방안: 사서·교도 및 부전공 교사 자격 연수를 중심으로”, 교육월보(1993.8) pp. 60~65.
- 18) 이정, 김경애(1993),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pp. 54~59.
- 19) 이종이(1995),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장은정(1991), “교사의 교직 전문성 인식과 역할 수행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채정현(1996),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목표에 대한 필요평가”, 한국생활과학학회지 5(1): pp. 89~98.
- 22) 한국교육개발원(1992), 교사 신규채용 및 전보제도 개선연구. 연구 보고 PR 92-32.
- 23) 한국교육개발원(1994), 교사 양성 체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PR 94-18.
- 24) 한국교육개발원(1994), 교사 양성 체제 개선 방안 세미나 보고서. 연구자료 RM 94-1.
- 25) 한국교육개발원(1996), 제 7차 교육과정 공청회 안.
- 26) 한국학교연감편찬위원회(1995), 「한국 학교연감」, 서울.